“부처님과 갱뱅” 힙합곡 불교폄훼 공분

힙합가수 김효은 씨 신곡 ‘머니로드’ 가사 논란 여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3월 30일 공개된 문제의 앨범커버사진(사진 왼쪽)과 힙합가수 김효은 씨. 사진=김효은 개인SNS

여성혐오 · 강력범죄 표현 담겨
“천주교 성체 모독 논란 상기”
조계종 종평위, 소속사에 항의
소속사 “음원 배포 중단 결정”

힙합가수 김효은 씨의 신곡 ‘머니로드(money road)’가 여성혐오와 범죄의 표현을 담아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은 가운데, 해당 곡에 “부처님과 갱뱅(gangbang)”이라는 ‘불교 폄훼’ 내용까지 담겨 불교계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김효은 씨의 신곡 ‘머니로드’는 다른 래퍼 브래디스트릿(brady street)과 함께 작업한 곡으로 3월 30일 음원사이트에 공개됐다. 이 곡에는 “메갈년들 다 강간, 난 부처님과 갱뱅, 난 절대 안가 깜빵, 니 가족들 다 칼빵”이라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담겼다. 음원 공개 이후 온라인커뮤니티 메갈리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용어와 ‘칼빵’과 같은 범죄 행위 가사로 인해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누리꾼들이 이 곡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가수와 소속사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김효은 씨와 브래디스트릿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휘 선택이 지나치게 과격했던 점을 반성한다. 하루빨리 가사를 수정해서 업데이트 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음원 공개 전, 상식을 갖춘 성인이라면 해당 가사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점에서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로 인해 이번 음원 공개를 ‘노이즈 마케팅’으로 평가하는 일부 누리꾼들의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불교를 폄훼하는 가사인 ‘부처님과 갱뱅’은 뒤늦게 불교계에 알려지며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갱뱅(gangbang)은 ‘윤간’ ‘난교’를 뜻하는 영어 표현이다. 힙합계서는 갱스터들이 하는 행동을 ‘갱뱅’으로 표현하며 많은 곡에 가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갱스터 자체가 폭력배를 의미해 이를 불교의 교조인 ‘부처님’과 연관지은 점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불자들은 이 같은 가사가 지난해 남성혐오 온라인커뮤니티 워마드의 천주교 성체 모독 논란을 상기시킨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평소 힙합음악을 즐겨듣는다는 한 대학생 불자는 “평소 김효은과 그의 소속사 앰비션뮤직 음악을 자주 들었는데 이번 사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앰비션뮤직은 불자래퍼로 잘 알려진 도끼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일리네어 레코즈 하위 레이블이다.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 김효은 씨와 그의 소속사인 앰비션 뮤직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종평위는 공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처님을 언급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하고 추악한 범죄행위를 표현한 것에 묵과할 수 없다”며 “당사자와 소속사의 무책임한 행위에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종평위는 이와 함께 △머니로드 가사와 관련한 종교 폄훼에 대한 진상규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음원 배포 중지 △재발방지와 참회 △진상규명 및 조치 등에 대한 회신을 김효은 씨와 소속사에 촉구했다.

앰비션뮤직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소속사에서 검수해야 했지만 곡이 급박하게 나오며 놓친 부분이 있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모두 잘못을 인정해 음원사이트에서 곡을 내리기로 했다”며 “가사는 개별 활동하는 브래디스트릿이 썼기 때문에 가사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생명나눔 홍보대상’ 신설

생명나눔, 선정위 1차 회의
위원장에 김진문 회장 선출
연말, 공로자 2명 선정 · 시상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등 생명나눔 운동을 알리는 데 공헌한 이들을 시상하는 생명나눔 홍보대상이 새로 만들어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4월 2일 법인 회의실에서 생명나눔 홍보대상 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보대상 선정위원장으로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이, 손재현 동국대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홍보대상의 상명칭과 부상 · 상금 규모, 심의 방법 등이 논의됐다.

생명나눔 홍보대상은 1년 동안의 △생명나눔실천본부 법인 행사 기여도 △홍보 횟수 △전문성 및 성실성 △법인에 대한 관심도 등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관련 홍보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 · 심의해 공로를 치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후보자 추천은 생명나눔실천본부 법인, 후원회, 홍보위원회 추천으로 이뤄지며 수상자는 선정위원회 심의 평가를 거쳐 연말에 선정된다. 수상 내역은 홍보대상 1인과 홍보우수상 1인으로 각각 상패와 홍보대상 200만원, 홍보우수상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김진문 선정위원장은 “앞으로 생명나눔을 위해 제일 열심히 노력한 개인과 단체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명나눔 홍보대상 선정을 위해 구성된 홍보대상 선정위원회에는 이사 및 후원회장, 홍보위원회 회장 등 내부 심의위원 4인과 객관적이고 홍보의 질적인 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언론인,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진 외부 심의위원 3인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4.3 희생자 넋 기리다 불교계가 제주4.3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제주4.3 사건 71주년을 맞아 4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추모재를 봉행했다. 사회노동위원 스님과 영산재 이수자 스님 등은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단에서 희생자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배상을 위한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경기도에 깃든 원효 발자취는?

지난해 11월 경주와 경산 일대를 중심으로 ‘원효순례’를 펼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원효의 발자취를 찾아 떠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호성)는 4월 20~21일 경기도 일대에서 ‘화쟁의 원류를 찾아서-원효의 발자취 순례(경기편)’을 실시한다. 이번 순례서는 원효가 중국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가 해골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를 깨달은 화성 당성, 수도사 오도체험관, 약사여래를 만나 창건한 흥국사, 선정에 전념한 토굴이 있는 원효사 등을 순례한다. 이와 함께 용주사에서 1박을 하며 순례 둘째 날에는 템플스테이 체험도 진행된다.

‘원효순례’는 걸림 없이 대중을 보듬어 안았던 원효의 발자취를 따라며 인간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고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다. 참가희망자는 4월 15일까지 화쟁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02)737-0864 윤호섭 기자

세계유산 ‘산사’ 타임스퀘어서 만난다

LG전자,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산사’ 홍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소개되고 있는 세계유산 산사 홍보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LG전자(대표이사 조성진)는 “문화재지킴이 사업의 하나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홍보 영상물을 오는 4월 10일까지 상영한다”고 4월 2일 밝혔다.

이번 영상 홍보는 한국의 세계유산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문화유산채널)이 홍보 영상의 기획과 제작을 담당하고 LG전자가 보유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지원하는 협력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보 영상물은 총 35초 길이로, 한국 불교문화의 역사성, 자연과의 조화, 문화의 지속성, 수행생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다양한 산사 사진들에 3차원 입체(3D) 트래킹(Tracking) 영문 자막을 삽입한 점이 눈길을 끈다. 영상은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2주 동안 약 1,680회(1일 약 120회) 상영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세계의 교차로’라고 일컬어지는 뉴욕의 타임스퀘어는 뉴욕 42번가, 7번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삼각지대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치열한 광고 경쟁을 벌이는 곳”이라며 “세계적 문화 중심 거리이자 관광명소인 만큼 이곳에서 한국의 산사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 활성화 효과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석굴암과 불국사 등 불교문화유산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2개월간 소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에도 LG전자의 협조로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등이 1일 40회 이상 소개됐다. 이밖에 2017년에는 런던 피커딜리 광장의 LG전자 전광판을 통해 석굴암 등이 소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은사, 여진선원 개원법회 봉행

봉은사(주지 원명)가 4월 8일 여진선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봉은사는 지난 3월 대전 여진선원 운영지원사찰로 선정되며 관리인(주지)으로 성혜 스님을 임명한 바 있다.

여진불교문화재단 및 여진선원은 2009년 5월 27일 설립됐다. 이후 2011년 4월 7일 조계종에서 운영권을 인수하여, 2011년 7월 12일 직할교구 포교소 여진선원으로 등록됐다. 일반에는 여진불교미술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날 개원법회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여진선원 주지 성혜 스님, 여진불교미술관 이진형 관장을 비롯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여했다.

봉은사 측은 “여진선원은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지인 대전 유성구 탑립동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시 수행 및 포교에 전진도량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2)3218-4832

노덕현 기자

혜암대종사 수행도량 지리산 영원사 순례법회



조계종 제10대 종정과 해인총림 방장을 역임하신 혜암대종사께서는 출가이후 평생토록 일종식(一種食)과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하시며 고행정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죽어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혜암선사 문화진흥회에서는 혜암대종사의 탄신 100주년(2020년)을 기념하고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수행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수행도량을 찾아서 봄 · 가을 순례법회를 봉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회는 오는 5월 1일 오후 1시 지리산 영원사에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대종사를 증명법사로 모시고 제4차 순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서울 · 경기지역 출발 일시와 장소 안내

■ 출 발 일 : 양력 5월 1일 수요일
■ 출 발 지 : ①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구 : 오전 6시
②조계사 앞 : 오전 6시 40분
③강남 뉴코아 백화점 앞 : 오전 7시 30분
■ 동 참 금 : 4만원(점심공양 제공)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35902-01-626693 이유승(만법회)
■ 문 의 : 순례단 사무국장 이유승 010-4509-7308

사단법인 혜암선사 문화진흥회 이사장 성 법